

열린 마당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취약한 제주



김철규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공무원의 법을 집행하는 직업으로 특히 최일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는 수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 옥외광고물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태풍은 유난히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해 많은 피해를 입혔다. 태풍에 대비해 옥외광고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처음 접한 나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웠다. 무작정 현장을 돌아다니며 위험해 보이는 현수막 입간판 등을 치우고 혹시나 추락이 급박해 보이는 간판이 있을까 하는 걱정에 유관기관만 현장을

살펴 볼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8호 태풍 바비가 지나가고 제9호 태풍 마이삭을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때의 일이었다. 어느 상가 건물에서 신규 간판을 설치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관계자에게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보이는 간판을 어떻게 하면 판별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해 봤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주변 간판들을 같이 살펴보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상태에서 간판이 위험할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설명을 들으니 간판의 안전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약간의 경험과 지식이 생긴 것 같아 안도감이 들게 됐다. 다행히 이번엔 발생한 태풍 '찬투' 때에는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함을 느꼈다. 현장 담당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모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영어 베스트셀러



강승훈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

일정 기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의미하는 베스트셀러는 1897년 한 문에 잡지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발표하면서 처음 사용됐다. 영문법 베스트셀러도 시대마다 달라졌다. '성문 종합영어'가 예전에는 부동의 베스트셀러였다. 이 책을 몇 번 봤는지가 영어 실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정도였다. '맨투맨 종합영어'는 요즘 말로 하면 '혼공'이 가능할 만큼 자세한 해설로 '성문 종합영어'의 대항마가 됐던 책이다. 한때는 수필 형식의 '두 번만 읽으면 끝나는 영문법'이 베스트셀러 자리

를 차지했다. 그런데 지금은 베스트셀러의 위력이 예전만 못한 것 같다. 이제는 '성문 종합영어'처럼 대다수의 영어 학습자가 찾는 대형 베스트셀러는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예전과 달리 좋은 영어책이 많기도 하고, 책 말고 유튜브 등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럴 것이다.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영어 학습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남들이 보는 베스트셀러만 본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야 느는 것이다. 나도 영문법에 관심이 많아서 서점에 가면 영문법 신간부터 살펴본다. 우리집 책장 가장 좋은 곳에 진열되는 행운을 누리는 것도 영문법 책이고, 내 꿈도 영문법 책을 쓰는 것이다. 관심 분야의 책을 써보는 멋진 꿈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어쩌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지도 모른다. 나도 영어 베스트셀러 작가를 꿈꾼다.

식중독 예방으로 건강한 가을 맞이하자



고은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아침·저녁 선선한 날씨에 그동안 코로나19로 자제됐던 실내 활동들이 백신 접종률의 증가와 더불어 야외활동과 같은 가을나들이가 잦아지는 시기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낮 기온으로 야외활동 시 준비한 음식이 자칫 방심하면 식중독을 야기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때이다. 따라서 가을철 건강한 나들이를 위해 식중독 발생 및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겠다. 첫째, 도시락을 준비할 때 조리 전·후로 세정제 등을 이용한 30초 이상 손 씻기, 뚜껑, 과일·채소류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행구고, 육류 등 식품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히기. 셋째, 김밥을 준비할 때 밥과 재료를 충분히 익히고 식힌 후 조리하며, 도시락은 밥과 반찬을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담기. 넷째, 조리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에서 보관·운반하고, 햇볕이 닿는 곳이나 차량 내부, 트렁크 등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다섯째, 주변의 덜 익은 과일이나 야생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해서는 안 되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기. 여섯째,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침방울 튀는 행위 또는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일곱째, 많은 사람이 모인 밀집한 장소에서 취사와 식사는 최소화하고, 주변 사람들과 근접한 거리에서 식사하거나 대화를 자제하기. 이는 결코 어렵지 않은 방법이며 개인위생에 조금만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식중독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건강하고 안전한 가을 나들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ICC JEU 대표 재공모 적격자 지원할까?

“새도정 출범에 지원 기피”

○... (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U)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회의산업 관련 전문 능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재공모를 진행...

ICC JEU 임원추천위원회가 실시한 대표이사 공모에는 모두 6명이 지원, 서류심사와 면접을 진행한 결과 제주 마이스 산업을 이끌어나갈 만한 적임자는 전무...

한 고위직 공무원은 “대표이사 임기가 임종일로부터 3년이지만 내년 새도정이 출범하면 대표이사도 바뀔 가능성이 높아 지원을 기피하는 것 같다”고 언급...

바닥 모르는 참조기 위판단가

○...올해 하반기 참조기 위판단가가 급락하면서 행정에서도 고심.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9월 17일 기준 참조기 위판량은 1328t으로 작년 같은 기간(1054t)보다 26% 증가한 반면 위판단가는 15~

16만원 (13kg)으로 작년(19~27만원)에 비해 21~41% 하락.

지난 29일 안동우 제주시장장은 참조기 어망 조립공장 ‘한수영어조합법인’을 방문해 “어업인 및 관련 단체 등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

“백신 미접종 불이익 없을 것”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정부의 만12~17세 코로나19 백신 자율적 접종 계획과 관련 거듭 접종을 강제하지 않을 것임을 역설.

이 교육감은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미접종시 교내활동 불이익 우려 지적에 “학교장 비대면 회의서 일체 강제해서도, 불이익 줘서도 안된다 했는데 그 과정에 조금씩 전달이 될 뻔했다면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

또 학생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 학교별 수요조사 등 어떠한 통계도 내지 않을 것임을 강조...

사설

백신접종률 높여야 '일상 회복' 앞당긴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될 전망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선 앞으로 백신 접종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방역체계 전환 시점은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마치는 10월 말을 기점으로 본다. 정부는 확진자 수 중심인 현행 방역체계를 위중증 환자 수와 치명률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월 말까지 접종

완료율 70%를 목표로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도민 가운데 1차 접종자는 49만9558명, 접종 완료자는 31만3985명이다. 접종 완료율은 전체 도민 인구(67만 4635명) 대비 46.5%를 기록하고 있다.

며잖아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건 분명해 보인다. 잇그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루 확진자가 3000명대 나와도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진 않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백신 미접종자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18세 이상 도민 중 아직까지 한 차례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인원이 12만7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일상 회복'을 앞서 시행한 나라들도 신규 확진자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다.

'층간소음' 제주도 심각, 민원대책 만전을

전국적인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이 제주에서도 급부상중이다. 도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늘면서 '층간소음'도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 있지만 자칫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이 큰 우려다. 도정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갈등 관리를 위한 민원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환경부 자료 분석 결과 제주지역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지난 2016년 79건에서 2017년 121건, 2018년 159건, 2019년 114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작년엔 244건으로 급증,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올해엔 8월까지만 206건이나 접수된 상황이다. 도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그간 증가세를 보인데다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는 개인성향, 사회 전반의 갈등분출 경향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층간소음 문제는 원인 못지않게 자칫 이웃간 큰 싸움으로 번져

충격적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개인성 때문에 더 심각성을 지닌다. 지난 27일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30대가 층간소음으로 이웃 부부를 살해한 뉴스가 그 사례다. 제주도도 층간소음에 육설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일이 나오지 않는 판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집콕생활'도 일상화돼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도가 문제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의 관련 업무 협약에 나서면서 자체적인 민원대응 창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층간소음 원인 파악과 부실시공 확인, 피해주민 의견 반영 등으로 해법찾기에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 관련기관 협업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층간소음 상향의 심각성을 인식, 조기에 새로운 민원대책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할 필요도 있다. 갈등 당사자들 역시 서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부고
양이진(미듬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어머니 서옥순(향년 83세)께서 2021년 9월 30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10월 2일(토요일)
발인일시: 2021년 10월 3일(일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한림읍 금악리 선영

부고
문성석(자영업) 아버지 남평문공인화(처사·향년 82세)께서 서기 2021년 9월 30일 15시 8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10월 2일(토요일)
발인일시: 2021년 10월 3일(일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상가리 선영

제주도정소식
여성기업 지원사업 신청업체 추가 모집
지원대상: 여성기업확인서 보유기업
지원조건: 본사가 제주도 내에 소재한 여성기업 중 제조업
지원내용: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기업별 최대 200만원
신청기간: 2021. 9. 13(월) ~ 10. 07(목) / 18:00까지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방문, e.mail, fax
문의: T 805-3373, F/X 751-3339, E.MAIL bsko@jba.or.kr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17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누수탐지: 가스식 정밀식 수도매관 녹물정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